

동구, 합계출산율 자치구 중 ‘1위’ …인구정책 통했다

인구 대비 청년 비율도 가장 높아 육아 카페·맘 택시 등 사업 호응 “전 연령 삶의 질 향상 매진할 것”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 쇄신과 정주 여건 개선, 인문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이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한 인구 증가로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지역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이후 적극적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에 힘입어 2019년 9월 인구 10만명을 재회복했고,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0.86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구·남구(0.59명), 광산구(0.77명), 북구(0.72명)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인구 대비 청년 비율도 높다.

연도별로는 2023년 28.1%, 2024년 27.6%를 기록해 지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동구는 앞서 인구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인구 관련 업무를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확대했다.

해당 부서는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출산 업무를 포함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며 4대 추진 전략과 12개 분야, 28개 과제, 61개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3월 인구 인식 개선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연령대 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댄 이 자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대표 4명과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 참여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15건의 제안 사항 가운데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으로 발굴, 관련 부서 간 회의를 거쳐 통합적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개소한 우리동네 육아소통 플랫폼 동구 육아카페는 임신부는 물론 양육자(부모)를 위한 소통과 힐링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동구 맘 택시’ 역시 교통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꼽힌다.

지난해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6.9%의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교통비 지원 금액을 증액(월 2만원→월 3만원)하고 영·유아 가정 지원 월령을 늘려(0~12개월

→0~24개월) 확대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돌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 용품(미아 방지 은목걸이) 증정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돌상 대여 △동구 맘 택시 운영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과 청년 인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출산·육아, 청년 정책을 비롯해 각종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전 연령을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북구, 구립도서관 5·18 프로그램 ‘풍성’

광주 북구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오월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중흥도서관에서는 △5·18 기억의 서가展 △말하다, 쓰다, 기억하다 삼행시 등 전시 및 체험 과정이 진행된다.

오는 16일부터 3일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원화와 5·18 관련 도서 20여권을 전시하고 5·18, 민주주의, 한강 등 키워드로 삼행시를 제출한 주민에게 1회 연체 무효, 대출 권수 추가 등의 혜택이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18일에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18 스토리텔링과 북아트 체험활동을 제공한 뒤 주먹밥을 만드는 ‘민주의 책상, 기억의 도시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곡도서관은 오는 20일까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포함한 5·18 관련 도서를 필사하고 직접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주민에게 5·18 추모 꽃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5년 전 광주의 오월과 한강 작가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도 상시 상영할 계획이다.

운암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23일까지 1980년 5월 당시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며, 16일에는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그림책을 읽고 책갈피를 만드는 등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신용도서관에서도 5·18 관련 도서를 전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서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가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주민들이 일상에서 45년 전 광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5개 구립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 광산구가 중국 선전과 우한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MOU를 체결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중국서 7개 기업과 62만 달러 수출 협약

유기농마루 등 지역 3개 기업

광주 광산구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올해 첫 해외 시장 개척 지원사업으로 지역 3개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33건의 수출 상담을 하고, 현지 7개 기업과 62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광산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체에 의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첫 시작으로 기술력, 시장 경쟁력을 갖춘 유기농마루, ㈜팬퍼스, ㈜우리로 등 3개 기업과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중국 선전, 우한을 찾아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사전 시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결된 수입상(바이어)들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주력 제품을 소개하고, 국제적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 현지 시장 진출을 논의했다.

특히 수출상담회에서 3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돼 현지 7개 기업과 총 6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약정을 맺었다.

참여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동시에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산구는 KOTRA 중국무역관과 협업체 이번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도록 다각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지역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대표 경제도시로 꼽히는 시르다리야주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현지 기업 등과 6건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수출의 다리를 놓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첫 성과를 놓는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첫 성과는 다른 기업들의 도전과 의지를 돕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이 있지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중소기업 일터 개선 지원사업 규모를 1억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노동환경 개선,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영봉 기자

서구-지역아동연합회 ‘어린이사랑대축제’ 성황

학생·학부모 등 400여명 참석

광주 서구가 최근 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사랑대축제’를 주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축제는 지역 아동과 학부모, 아동복지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주제 아래, 아이들의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존중받는 무대로 꾸며져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에 참여한 아동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갈고닦은 합창, 악기 연주, 댄스 등 다채로운 재능 발표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러진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10명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표창장이 수여됐다.

‘가죽상’에 문수지(서광초5), 나성민(주월초3)학생이 수상했고, ‘진절상’은 조하영(금부초5), 고혜성(금당초5), 양승우(염주초6)학생에게 전달됐다.

또한 ‘봉사상’은 정하운(염주초5), 유현우(농성초5), 김지호(양동초6)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박가혜(금호초5), 문다솜(풍암초6)학생이 ‘명랑상’을 수상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All KIDS ZONE’ 조성,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 준비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 특별이벤트

광주 남구가 이달 말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감사 이벤트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와 3만원 상당 기본 답례품, 특별 이벤트 품목 추가 증정까지 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이벤트 품목은 광주축협 1등급 한우 등급 추가와 프리미엄 바스크 치즈케이크 추가, 베이글 세트+커피 티백, 하림 1호 선물세트+장인 라면 등 4종류로, 1가지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남구를 클릭한 뒤 기부금 납부와 함께 이벤트 답례품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주민자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환준 기자



광주 남구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와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서 백양로 금·토 야시장이 개장한다.

광주 남구 제공

남구, 백양로 금·토 야시장 개장

광주 남구 백운광장의 핫 스팟인 푸른길 브릿지와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서 백양로 금·토 야시장이 개장한다.

14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백양로 금·토 야시장이 지난 10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 향연이 펼쳐진다.

남구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 지원한다.

야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문객들에게 매주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

고, 금요일을 제외한 토요 야시장 날에는 스트리트 푸드존 주변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또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지역에 있는 점포 10곳의 온라인 홍보를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시장 매니저를 육성해 백양로 상인들의 행정업무와 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극한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야시장은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